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추석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 점검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조기, 명태, 오징어, 굴비 등 제수·선물용 품목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명절 맞이 민관 합동 안전점검 나서

정읍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귀성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버스터미널, 태안터미널, 시립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추석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숙박시설 등 10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31개소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28개소는 보수보강을, 3개소는 현장 시정을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28회 고창해풍고추축제 성료

## 직거래장터서 고추 1만5000kg 판매

‘제28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지난 25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 고추판매량은 총 1만5000kg(2만5000근)으로 지난해 축제 대비 3940kg(6567근)이 늘었다.

제28회 고창해풍고추축제는 “맛있게 매운맛! 자연을 담은 고창해풍고추”를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3일간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 해풍고추 김

치 만들기,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 해풍고추 품평회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고창해풍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알렸다.

해풍고추 직거래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판매해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2일차에는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를 통해 14개 읍·면 대표 출전자들이 각자의 장기와 노래실력을 뽐내며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마지막날 열린 해풍고추 품평회에서는 고창군 관내 14개 고추 생산농가들이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 가지고 나와 고창 해풍고추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송진의 고창해풍고추축제 위원장은 “고창해풍고추축제가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건강한 황토와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해풍 고추와 고창농특산물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농가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명 찾아

## 고창군, 101명 국가보훈부 서훈신청

고창군이 지난 23일 고창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진행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문화유산연구소(천지명 박사)는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판결문 수령인 명부, 학적부 등 확보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독립운동 참여자 176명 명단을 확인하고, 이 중 판결문 수령기록 등 국가보훈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01명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했다.

고창군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01명을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예우와 함께 그들의 공훈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은 현재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해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10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말장복의병사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단 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역사 속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찾고, 의향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추석 명절 대비 코로나 예방 · 귀성객 편의 강화할 것”

## 이학수 정읍시장, 영상간담회의,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도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은 26일 영상 간담회의를 갖고 최근 코로나19 감염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상황에서 감염 예방 수칙 준수와 확산 방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명절 동안 많은 출향인과 귀성객이 정읍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귀성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로 인해 임시 포장이 된 도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바다와 만나는 곳 곰소만! 어서오새우!’

##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 30일 부안 보안면 개최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가 바다와 만나는 곳 곰소만! 어서오새우! 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부터 9월 8일까지 부안군 보안면 신복길 132-60 일원(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부안군 왕새우 양식가들이 곰소만 청정갯벌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왕새우의 소비촉진 활성화와 곰소만 왕새우의 상식하고 오동통한 식감과 쫄깃하고 단백한 왕새우의 고유한 맛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축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왕새우 할인판매, 셀프 왕새우 소금구이와 더불어 왕새우와의 콜라보 요리(왕새우 튀김, 왕새우 라면, 왕새우전)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으며, 방문객 경품추첨과 이벤트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

다. 예로부터 왕새우는 면역력강화, 혈액순환 특히 타우린과 키토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작용과 노화방지, 간기능 보호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곰소만(쫄포만) 탐사르습지보호지역 청정갯벌에서 자란 왕새우는 미세탈이 풍부한 청정갯벌 덕분에 맛과 영양이 좋아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왕새우 양식어가(대표 김태수)들은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근절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곰소만에서 정정되어 길러낸 상식하고 영양가 높은 왕새우 고유의 맛도 즐기고, 곰소만 서해바다 붉은노을에 이끌려 주변 관광지인 곰소염전과 쫄포만 해



안채림 탐방도로를 경유하여 쫄포만 노을빛정원을 감상한다면 인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관광객 방문을 부탁했다.

/부안=김영식 기자

# 정읍시, ‘청렴한 정읍’ 다짐

## 전 직원 청렴교육 · 공직기강 확립 · 시민중심 청렴행정 추진

정읍시는 2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중심의 청렴행정 추진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박연정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주요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경감할 수 있는 갈등 상황 대처법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태도와 대화 기술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학수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갑질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문자 알리기, 부패방지 아이디어 공모 선정,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홍보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31일 고창문화의전당서 ‘KBS 국악한마당’ 공연

대한민국 관소리의 분향인 고창군이 KBS한국방송과 함께 국악한마당 공연을 오는 31일 오후 4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국악한마당은 국내 최정상 국악인들의 전통 관소리, 민요, 연희 등 다양한 국악 레퍼토리를 열린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국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트롯 명창 신승태, 국

악에서 트롯 신동으로 불리는 김태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 박예리, 남상일, 퓨전국악밴드 역시,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녹화 방송은 오는 9월14일 낮 12시10분부터 KBS 1TV에서 추석특집으로 전국 방송 예정이다. 공연료는 무료이며 오후 3시30분부터 선착순 입장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